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채 혜 숙[†]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ustainable Slow Design and Contemporary Fashion

Hye-So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 Hee University

접수일(2008년 9월 1일), 수정일(1차 : 2009년 1월 14일, 완료일 : 2009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slow design, The outcome derived from the pro-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fashion design, and the trends of modern fashion desig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low design for sustainability shows a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stresses the ethical aspects of fashion design that take into account the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It also focuses on the continuous present in which the consistent pace of life endures, rather than pursuing speedy changes of fashion by titillating desire. Second, the five characteristics of slow design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analysis of the examples of fashion industry and other fashion-related areas. They are sustainability, recyclibility, handcraft, naturalness, and simplicity. Third, these characteristics of slow design have much to do with modern fashion genres. For instance, classical style fashions such as Chanel suit and Burberry coat have the same qualities of sustainability, while at the same time the Vintage fashion, which reinterprets the fashions from bygone eras in modern style, has the tendency of recyclibility, and the Hippie style, a resurrection of hand-touch spirit that emerged as a secondhand style expressionism resisting uniform mass production, has not only the quality of handcraft but also recyclibility.

Key words: Timeless characteristics, Renewable characteristics, Hand-touch characteristics, Natural characteristics, Simple characteristics; 지속성, 재생성, 수공예성, 자연성, 단순성

I. 서 론

산업 혁명이후 경제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화 등에 의해 야기된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수질 및 대기 오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편리하고 편안

한 생활을 위해서 생태 구성원적 윤리성의 문제는 묵시되었다.

따라서, 빅터 파파넵은(Victor Papanek)은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는 좀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지구 환경 파괴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강조 한 바 있다(빅터, 1971/1995).

이러한 상황 하에 환경에 관련된 디자인 연구가 여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esoog67@hanmail.net

러 분야에서 진행 되어 왔으며, 패션에서도 재활용에 관련하여 히피, 에스닉, 자연주의, 원시주의, 그린디자인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추구의 열망으로 첨단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고, 과학적인 제요소가 의복 디자인의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의생활의 변화 추구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 현상은 윤리 의식이 결여된 채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강조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패션 연구로는 빅터 파파넬의 생태학적 미학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이연희 외, 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이연희 외, 2007),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김수현 외, 2007) 등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연구에서 아직까지는 미래적 접근을 위한 현시대 패션과의 보다 더 구체적인 연관성이 시도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을 찾아보고 현행 패션 스타일과 접목, 현 패션과 관련한 보다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개념을 파악한다.

둘째, 현 생활에서 표출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느린(Sustainable Slow)에 관한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필요 요소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도출해 본다.

셋째, 위의 연구로 도출된 특성에 내재된 현대 패션 스타일을 알아보고 현행 패션과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요소의 상관성을 통한 보다 더 지속적이고 깊은 연구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 하였으며, 문헌으로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패션 잡지, 신문, 패션 서적을 참고 하였고 실증연구로는 서적을 통한 사진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사진, 인터넷 사진 자료 300컷을 수집하여 본 논문과 부합되는 사진 자료 30여컷을 선정하였는데, 객관성을 위해 패션 전공자와 패션 실무자 10인과 환경 관련자 2인이 참여하였다.

연구범위로는 문헌에서 패션 디자인에 있어 환경적인 요소의 접목이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이고 클래식을 제외한 사진 자료 역시 1990년 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로 한다.

II.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개념

1.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개념

1) 지속 가능한의 개념

지속 가능 발전의 사전적 의미로서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용어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현재는 인문 사회학 전반에 걸쳐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 안에서 자연적 생산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후자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란 디자인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 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한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논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지속 가능성'에 관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선포식을 갖기도 하고 대통령이 '친환경 대통령 선포식'을 하는 등 정치 사회 전반과 마트에 그린 마일리지 전용 코너가 생길 정도의 생활 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세대와의 형평에서 시작해서 현 세대 내의 공존까지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지속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2) 느린 디자인의 개념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은 산업디자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알라스테어 푸에드-룩(Alastair Fuad-Luke)은 '디자인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느린 디자인'은 인간의 인도적인 진보를 위한 도구로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었던 긴 역사적 역할을 고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계속되는 현재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며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및 정보화 사회에서의 빠름의 미학이 강조되고 인터넷이나 TV광고를 통한 소비 욕망의 자극에서 속도보다는 느림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 사회, 환경의 웰빙에 주력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 하

에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이란 환경적인 면에서 단순한 보존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디자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환경 자원의 보존과 자연 친화적 관계들을 고려하는 확대된 자연주의 개념에 의한 디자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생태학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개념에 의한 환경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사료되어진다.

2.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발생배경

‘지속 가능한’이란 용어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1972년 스위스에서 열렸던 인간 환경에 대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개최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적 공동 관심을 갖고 지나친 개발 위주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2년 ‘로마 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이란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로서 환경 파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 후, 1983년 브룬틀랜드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개최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1987년 미국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Between Art & Business(이연희 외에서 재인용, 2007)). 따라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80년대 후기에서 90년대 초기에 발달 시기를 맞이 했다고 볼 수있다.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현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물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디자인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알라스테어 푸에르-룩(Alastair, 2002)에 의해 느린 디자인이 소개 되었다. ‘느린 디자인’은 인간의 그리고 인도적인 진보를 위한 도구로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었던 긴 역사적 역할을 고찰하고, 미래를 추측하기 보다는 ‘계속되는 현재’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며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003년 국내 ‘DESIGN’지에서는 Design for Sustainability, 디자이너가 지구를 살릴 수있다라는 명제의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알라스테어 푸에르-룩의 ‘Slow Designing the Evolution’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선언문 18조항을 공지하였다(“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또한 2005년 OECD-APEC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이 논의 되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각 회원 국가간의 경제, 무역, 개발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자원과 사회적 이슈들 즉, 지구의 생태계에 관련한 환경 문제를 다루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6월 세계 환경의 날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설치를 공식 선언한 바 있고 이후 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듭하며 사용 되어진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이 21세기에는 에코 디자인의 주된 용어로 ‘느린’이란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일반적 특성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본 장에서는 현 사회의 활동과 생활에서 실천되고 있는 기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한 분야로 사회의 지도자들에 아울러 일반 시민과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 분야, 의생활의 섬유와 패션 분야, 주생활의 건축·조형으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단,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에서 주는 건축·조형 분야에서 다루었고 의는 패션·섬유 부분에서 다루어졌지만 식은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주관적이 되고 연구 분야가 상이하여 다루지 않았다.

1. 산업 디자인

지속 가능 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이 선진국 기업경영의 새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일본의 도요타는 지난 97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그림 1>를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소니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지구 환경의 보전이라는 인식하에 ‘기업의 사회 책임보고서 2003’(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003)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기업으로서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업의 환경정책을 소개 하였다. 소니의 환경적 비전과 소니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개관, 생태 효율성, 환경적 책임경영, 기업의 환경 교육, 보다 높은 생태 효율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등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천방향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14개 주요 전자제품 브랜드의 37개 제품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니의 '바이오 TZ11' 노트북 PC<그림 2>가 에너지 효율, 독성화학물질 최소화, 재활용성 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국의 디자인 브랜드 스킨트(Squint)는<그림 3> 친환경 소재를 수작업으로 사용하는 독일의 디자인 그룹 '훗업(Hut up)'이 빈티지 가구에 알록달록한 패브릭을 패치 워크해 만드는 소파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선 '2009 트렌드'에 장인정신(craftsmanship)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유기농 천에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고 손으로 스티치를 하는 수공예 제품, 주문 생산하는 '맞춤형 디자인(bespoke design)'이 각광 받는 추세다. 또한, 곡물 껍질을 이용한 화분과 그릇 등은<그림 4>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리를 손쉽게 하고 있다.

2. 섬유 · 패션

패션 산업에서도 화학 처리에 의한 폐수 및 대기 오염 문제, 디자인의 짧은 수명 주기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의 누적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의류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의류 화학 약품은 발암성 물질로서 건강과 관련된 우려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패션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최근 일부 패션에 관련된 학자들은 미래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환경 친화적 디자인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리 액티버트(Reactivert)는 영국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예술품과 패션 상품에 재활용 소재 사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던 옷은 다시 손을 보아서 젊은이 취향과 유행에 맞추어 시장에 내놓는다. 이 중고 옷들은 변화가의 패션 상점에 진열된 옷처럼 밝고 재미있는 최신 유행의 옷이 된다. 앤 맥타비시(Anne Mctavish)는 패션 상점에서 나온 직물 조각을 이용하여 그녀의 모자를 만들었는데 와이어로 만들어서 모양을 변형 시킬 수도 있다(그림 5). 한편, 문화일보 2008년 2월 14일자 뉴욕타임지 인용 기사에 의하면, '피아니스트 이소연씨가 주스봉지 드레스를 입고 카네기홀 무대에'라는 제목이 있었다. 재미 피아니스트 이소연씨는 미국 카네기홀 공연 무대에 오를 때 수 천 개의 주스봉지를 이어 붙인 '재활용' 드레스를 선보여 미국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그림 6).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P. Gaultier)는 수공예 작품 요요 킬링<그림 7>을 선보인 바, 이러한 수공예적인 디테일은 때로는 여러 날 동안 여러 번의 힘든 공정을 거쳐 제작 되기도하고 지속적인 인내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은 창의적인 수공 느낌의 표현을 위해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3. 건축 ·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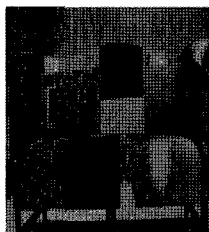
주택에 관한 지속 가능한 건축은 1992년 리우의 UN 환경 회의에서 주창된 '지속 가능한 개발' 원리에 비롯된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적합하고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건축물과 도시, 국가, 세계를 넘어 지구 전체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은 경제 원리에 의해 개



<그림 1>
도요타 프리우스



<그림 2>
TZ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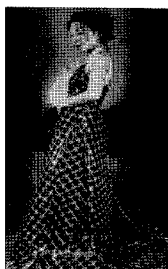
<그림 3>
수공 패브릭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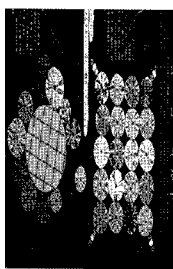
<그림 4>
곡물 화분



<그림 5>
앤 맥타비시
(Anne Mctavish)
변형이 가능한
와이어 모자



<그림 6>
쥬스봉지 드레스



<그림 7>
장 폴 고티에
(J.P. Gaultier)
요요 쉐팅



<그림 8>
2005 서울
리빙디자인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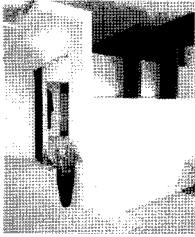


<그림 9>
삼성전자
'VIP 전용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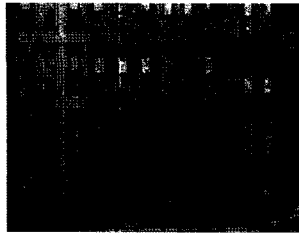
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현대 문명의 심각해진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을 현대 사회의 새로운 명제로 대두시켰다. 이러한 개발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기존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대안적 건축의 한 형태로서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독일의 생태 건축(Okoogisches Bauen), 일본의 환경공생주택(環境共生住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환경 보전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다양한 건축 운동 즉 생물 건축(Bio-Architecture)이나 녹색 건축(Green Architecture), 기후 순응형 건축(Bio climatic Architecture), 대안 건축(Alternatives Bauen) 등으로 다양한 경향으로 발전해가는 추세이고 용어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대림산업의 e-편한 세상은 2005년도 에코를 주제로 한 서울 리빙디자인 박람회에서 시공의 전 과정을 '품질과 실용성' '친환경과 건강'을 기본 개념으로 삼았다(그림 8). 에코 프로젝트 구성, 즉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아파트를 또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고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고 유해 물질을 절감시킨 친환경 벽지와 접착제·바닥재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건축 형태는 자연의 순환 프로젝트와 인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수용 용량 한계 내에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완공된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 VIP 전용클럽을 디자인한 우에키 간지(植木莞爾)는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디자인보다는 공간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노디자인(No design)'이라 칭하고 있으며 완만한 곡선의 철 구조물은 덩그러ん 공간을 분할하는 파티션이자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오브제이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은 절제를 통한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할 수 있다(그림 9). <그림 10>은 런던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매장으로 1985년 암스트롱 치퍼필드(Amstrong Chipperfield)가 설계했는데, 검정 슬레이트, 포크틀랜드 석재, 흰 대리석으로 대조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다. 미니멀 스타일은 패턴은 배제하고 깔끔한 단색의 소재가 중심이 되며 장식을 최대한 절제한다는 점이 미적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의 효율성과 자원과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환경을 고려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단순한 예술품이나 고전으로서의 전시 기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되어 과거에 제작된 작품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 19세기 초 고풍스러운 주택이 늘어선 뉴욕의 사우스포클랜드 에버뉴 거리는<그림 11> 뉴욕커들 사이에서 가장 살고 싶은 거리 중의 하나로 150여년의 전통이 있는 곳이며 <그림 12>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의 호텔 라비디아인데 이곳은 1103년 건립한 12면 탑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세 수도원을 폐허까지 그대로 보존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1999년 느리게 살기를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치타슬로(Cittaslow슬로시티)를 결성 한 이후 주민들이 빠르고 편한 길 대신 느리고 불편한 길을 선택 했으며 문화적 관심과 구매력이 높은 고급 관광객의 증가로 느린 도시의 넉넉함과 문화적 이미지가 큰 작용을 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 의사당 근방에 있으며 역대 영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웨스트 민스터<그림 13> 사원의 창건은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1세기에 에드워드 참회왕이 한차례 재건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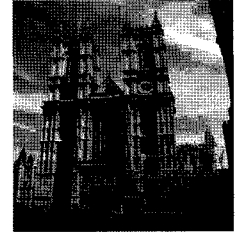
<그림 10>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



<그림 11>
사우스포플랜드 에버뉴 거리



<그림 12>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호텔,
1103년의 중세 수도원



<그림 13>
Westminster Abbey

리 3세의 발안으로 1254년 기공하여 69년에 완성, 헌당(獻堂)된 것이다. 그 후에도 증축은 거듭되어 맨 마지막으로 종탑이 완성된 것은 1734년 때의 일이다. 이와 같이 1000년 여 동안 건물이 재건되고 증축되면서 1300년 동안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와 보편성을 가진 것을 클래식이라 하며, 이러한 측면들은 수명 연장의 효과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느린의 개념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일반적 경향에 내재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

전술한 대로 우리 환경의 많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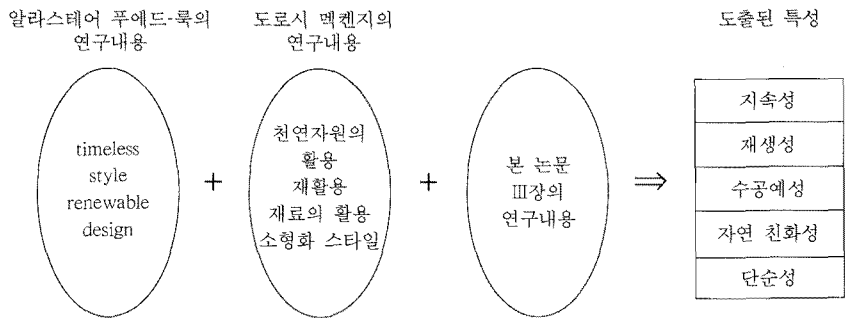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위하여 2000~2008년의 범위에서의 실증적 자료의 분석에 100컷 정도의 사진이 수집되었으며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n=5 이상) 자료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특성을 구분하는데 도로시 맥켄지(Dorothy Mackenzie)의 연구(Dorothy, 1991)와 알라스테어 푸에드-룩(Alastair, 2002)의 연구사례를 참조 하였는데, 먼저, 도로시 맥켄지의 연구내용에 의하면, 미래 디자인의 테마와 스타일로 천연 자원의 활용, 내구성을 강조하는 재활용 재료의 활용, 경제성을 강조하는 단순미의 귀환의 일환으로서의 소형화 스타일 등을 강조 하고 있었으며, 알라스테어 푸에드-룩은 '디자인과 발전'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느린 디자인의 요소로 자원 낭비의 일시적인 유행에 따르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치우쳐 폐기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지속적인 스타일로서의 timeless style,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여 재생 가능한 제품으로 연구개발하

여 디자인 하는 renewable design 등의 특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논문 장의 연구와 종합하여 다섯 가지의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이 도출 될 수 있었는데,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감각에 좌우 되지 않고 흐름을 타지 않는 지속성(timeless characteristics), 둘째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재생성(renewable characteristics), 셋째, 신속한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공예적 기법을 통해 느낌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수공예성(hand-touch characteristics), 넷째, 인위적인 조작이나 변형을 배제하고 자연의 천연성을 추구 하는 자연 친화성(natural characteristics), 다섯째, 미적인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의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과 자원 절약적인 측면의 단순성(simple characteristics)이다. 따라서 표로 정리하여 알아보면 <표 1-2>와 같다.

IV.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21세기에 주요 테마로 등장하고 있는 패션 사진 100컷을 수집하였다. 실증적 자료의 분석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패션 전공자 10인의 그룹을 통해 수집된 패션 자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n=6 이상) 자료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1차 수집 결과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스타일의 요소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장르 들에는 클래식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히피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원시적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 모던 스타일의 일곱 가지 장르가 선택되었고 최종 결론에서 에스닉이 히피의 범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모던 보다는 미니멀이 단순적 경향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

<표 1> 느린 디자인 특성 요소의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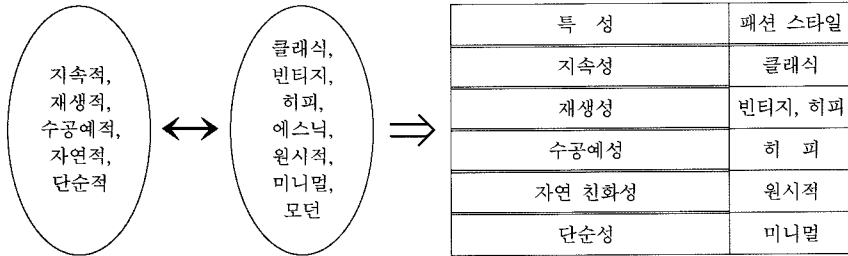
<표 2>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

일반적 특성	사 례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
몇 백년, 혹은 천년 이상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지속성
폐 비닐과 폐품을 이용한 옷과 모자		재생성
손으로 직접 제작한 퀴팅, 패브릭 제품들		수공예성
곡물 껍질로 만든 그릇, 자연 친화적 건축 디자인		자연 친화성
최대한 절제된 장식과 소형화된 크기, 중복되지 않는 색채와 기능성		단순성

된다고 사료되어 클래식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히피 스타일, 원시주의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의 다섯 가지

패션 스타일이 선정되었으며 <표 3>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최종 선정된 다섯 가지 스타일을 분석해보고

<표 3>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패션 스타일과의 상관성에 관한 전개 과정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요소와 연관성을 살펴어 그 관계를 표로 정리 해 보고자 한다.

1. 클래식 스타일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고대 그리이스, 로마의 예술을 이상으로 여겨 다른 시대, 다른 민족의 것도 이 기준에 합당할 때 이를 ‘클래식’이라고 하였으며,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패션에서 주로 유행에 죄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의복 스타일을 말하는데, 하나의 유행이 절정에 달하여 포화상태가 되면 자연히 쇠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나지만, 클래식한 스타일의 의상은 빠른 유행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지속성을 갖는 느린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의 예로 샤넬 수트는 20세기 초 샤넬이 고안한 디자인 이후 디테일의 변화만 있을 뿐 그 원형 디자인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그림 14> 버버리 트렌치 코트는 버버리사에서 100년이 넘게 지속되는 스타일로 영국의 전통 패션이라 할 수있다(그림 15). 한편, 대중 패션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일상 패션으로부터 럭셔리 패션까지의 다양한 일면의 진은 미국 서부 개척의 역사를 담고 있는 200년 이상의 미국 전통 패션이라 할 수 있다(그림 16).

2.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의 사전적인 개념은 대체로 옛날의, 고전적인, 오래되어 가치 있는, 고풍의라는 의미와 나아가 ‘구식의, 시대에 뒤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과거의 오래된 골동품성(Old), 남이 착용했었던 낡은 중고성(second-hand), 그 존재의 시대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는 진품성(authentic),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unique),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성(out-of-mode)의 특성을 갖고 있는 ‘찾아낸 패션’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둘째 앤 가바나(D&G)가 7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비바(Biba)를 영감으로 한 작품으로<그림 17> 모피와 진, 쉬폰 등의 재질을 사용하였고 호피와 도트 문양, 리본과 수술, 과감한 액세서리를 통하여 마돈나 풍의 락 분위기를 고혹적인 현대의 패션으로 디자인 하였다. 또한, 모시노(Hiver Moschino)가 1960년대의 클래식을 재현한 디자인으로 퍼프 슬리브에 사이니한 골드 컬러 장갑과 모피를 사용함으로써 리치한 느낌과 경쾌한 느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그림 18).

<그림 19>는 구찌(Gucci)의 작품으로 1940년대의 모델이자 사진 작가인 리 밀러(Lee Miller)에게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한 작품으로 더블 버튼에 헤링본 트위드 코트, 블루벨 프린트와 벨트, 짧은 길이 스커트에 부츠로 귀여운 느낌과 세시한 느낌을 표현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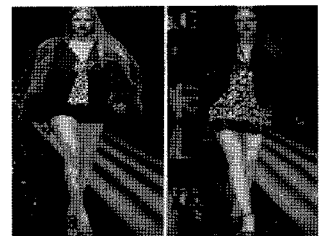
<그림 14> 샤넬



<그림 15> 버버리



<그림 16> Jeans



<그림 17> D&G, 2007-8 F/W

하였다.

3. 히피 스타일

1960년대,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에 의한 물질적 풍요함과 기성 세대의 반기로 패션에 새로운 정신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층의 패션에서의 히피 선풍은 사회의 도덕적 물질적 가치 전통의 개념 파괴로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 등 자신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의복에 담겨진 새로운 스타일을 출현시켰다. 히피 스타일은 자유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머플러나 의류로 자유자재의 다른 연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히피들에게는 중고의 과거 의상 착용이 일상의 도피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히피 문화의 정신적 배경에는 획일적 상품에 반대한 길드의 수공예 정신의 부활과 같은 표현주의가 수용되어 있다. 그 예로 영국 리 액티버트(Reactivart) 의복이 있는데 리처드 로열(Richard Royal)은 직물 상인들에게서 입수한 옛날 견본 책을 보고 12개의 다른 재킷을 만들었다(그림 20). 소몰리(Sommolil) 역시 겹옷을 오래된 사리와 깨진 인도 보석으로 제작하여 화려하면서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 21). 한편, <그림 22>는 스트리트 패션으로 머플러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상의가 허리에 두르는 장식 또는 하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4. 원시적 스타일

빠른 문명화나 기술화의 과정에서 본래의 감성의 숨결들을 의도적이든 은연중이든 배타함으로써 물질에의 지나친 종속, 비인간화, 인간의 꿈의 상실 등이 초래되어 현대인들은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시인들의 조형 의식처럼 순수하고 생생한 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바로 '원시적 스타일(primitive styl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 스타일의 예로 프라다(Prada)는 자연으로부터의 악세서리와 거친 헤어 스타일로서 원초적인 고향으로의 회귀를 표현하고 있으며<그림 23> 지방시(Givenchy)는 가공되거나 인공 염색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표현한 거친 느낌의 재질로서 자연과 공생하는 의미의 에콜로지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24). 또, <그림 25>는 꽃과 나뭇가지, 자연 소재의 재질을 통해 원시성을 시사하고 있다.

5. 미니멀 스타일

본 논문에서의 미니멀 스타일은 본래의 모더니즘적인 측면에서의 빠른 기계주의적인 관점보다는 Eco 개념이 강조 되고 있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환경



<그림 18>
Moschino, 2007-8 F/W



<그림 19>
Gucci, 2007-8 F/W



<그림 20>
Richard Royal



<그림 21>
Sommolil



<그림 22>
street fashion



<그림 23>
Prada,
2003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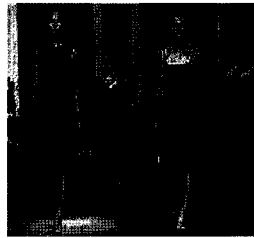
<그림 24>
Givenchy,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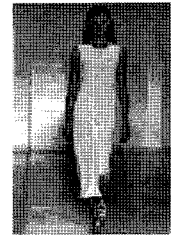
<그림 25>
꽃과 나뭇소재



<그림 26>
John Ribbe, 2007 F/W



<그림 27>
Prada, 2005 F/W



<그림 28>
Calvin Klein, 2008 S/S

과 인간을 고려하여 지나친 장식을 배제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합리적인 기능성을 부각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28>는 각각 존 리베(John Ribbe), 프라다(Prada), 켈빈 클라인(Calvin Klein) 작품으로 이들은 주로 공통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재질에 있어 흑백의 조화나 무채색 분위기와 단색을 사용하고 장식을 배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

여 자연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존 리베의 작품은 커팅을 통해 다양한 의상으로 변화 시키는데 매장 안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마무리 커팅을 할 수 있다. 또한 착장 방법에 따라 한 가지 의상이 복합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패션 스타일들은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접목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관성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이 정리되어 질 수

<표 4> 패션 스타일과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요소

패션 스타일	패션 스타일 사진 자료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	특 성
클래식 스타일		지속성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되는 스타일의 원형 유지, 약간의 디테일의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
빈티지 스타일		재생성	과거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로운 재해석으로의 악세서리와 의복 스타일의 재생 패션
히피 스타일		재생성 수공예성	중고 시장에서나 볼 수있는 악세서리와 의복 패션, 수공 머플러, 동일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한 패션
원시적 스타일		자연 친화성	다듬어 지지않은 헤어, 자연에서 얻을 수있는 꽃, 어패류 등의 악세서리, 가공되지 않은 거친 재질의 표현
미니멀 스타일		단순성	장식이 배제된 심플함에 중복되지 않는 절제된 색채의 단순미

있으며 장에서 결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량소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콜로지의 개념에 윤리성의 의식이 개입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을 우리 주위의 생활과 관련하여 패션과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 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한 윤리적인 면이 수반되었으며, 소비 욕망의 자극을 통한 빠름의 미학 보다는 계속되는 현재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며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추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었다.

둘째, 이에 산업 분야와 패션 관련 분야, 건축 분야의 분석과 도로서 맥켄지, 알라스테어 푸에드-록, 선행연구의 연구사례 참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이 도출되었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요소로서의 지속성, 둘째, 분해 가능하고, 견고하며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특성과 기존의 제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성, 셋째 기계적인 서구 문명에 대한 반발로 자연주의나 정신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출발한 수공예성, 넷째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 복합적 가능성, 다섯째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기론적 전통에 입각한 자연 친화성, 여섯째 자원 절약적 측면에서 지나친 장식의 배제와 색채의 중복 사용이 절제된 단순성이다.

셋째, 이러한 특성들은 현대 패션의 장르와도 상관성이 있었는데, 샤넬 수트나 버버리 트렌치 코트와 같은 유행의 변화에 쇠퇴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원형이 지속되는 클래식 스타일의 패션은 지속성, 과거 특정 시대의 스타일을 모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재생 패션의 하나로 일컫는 빈티지 패션은 재생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획일적 상품에 반대한 길드의 수공예 정신의 부활과 같은 표현주의가 수용되어 있는 중고 스타일로서의 히피 스타일은 수공예성과 관련지어 질 수 있는 동시에 재생성과도 연결 될 수 있었다. 또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원초적인 고향으로서의 회귀 즉 원시성을 시사하는 원시주의는 자연 친화성과 연결될 수 있었으며 한

경과 인간을 고려한 자원 절약과 합리적인 기능성을 부각하는 측면에서의 미니멀 패션은 단순성과 연관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 시대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환경 문제를 안은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현 시대의 패션과 접목시키는데 있어 문헌적 고찰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을 통해 고찰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미래 패션 제안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현진. (2001). 빈티지(Vintage)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2) 482-493.
- 금성관 영한 대사전. (1993). 서울: 금성출판사.
- 김미경. (2003). *현대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경향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현, 이재정. (2006).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7(3), 228-230.
- 김수현, 이재정, 정현숙. (2007).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 *복식*, 57(2), 116-131.
- 김혜경. (2007). FASHION TREND AND IMAGE. 서울: 교문사.
- 문정인. (2006). 지속 가능한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형태에 관한 연구-1990년대 이후 사무실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7(2), 336-343.
- 박선빈. (1996). *히피 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빅터, 파파넥. (1971).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 이은재 역 (1995). 서울: 미진사.
- 사우스포클랜드 에버뉴 거리. (2006, 11. 3). *동아일보*, p. 8.
- 서국진. (1988). *도에 반영된 자연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수공 제품이 올 최대 화두. (2009, 1. 5). *조선일보*, p. 27.
- 양윤정. (1993).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ural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영한대사전. (1991). 서울: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 원색세계대백과. (1990). 서울: 태극출판사.
- 이연희, 이현아, 박재욱.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2.
- 이연희, 하승연, 박재욱. (2004). 빅터 파파넥의 생태학적 미학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1(3), 185-197.

- 전종찬. (2003). 제품 디자인에 나타난 에코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1), 264-265.
- 쥬스봉지 드레스. (2008, 2. 14). *문화일보*, p. 29.
- 패션&디자인트렌드. (2009, 12. 12). *조선일보*, p. 3.
- 한소원. (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astair, F. L. (2002). *Eco-design hand book*. London: Thames & Hudson.
-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디자인하우스*, p. 298.
- Design & Style. (2009, 2. 16). *조선일보*, p. 24.
- Dorothy, M. (1991). *Green design(Design for the environment)*. Calmann & King Ltd, London: DRT International.
- Elisabeth, R. (1989).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SP Professional Books.
- Godfrey, B. & Janet, R. (2003). *Energy systems and sustainabil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am-Webster's international dictionary* (3th ed.). (1981).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mpany.
- Milan/New York, F/W. (2007-2008)*. Gap Press, pp. 46-59.
- Weekend, World. (2006, 11. 3). *동아일보*, p. 8.